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희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장주기 요셉

(1802-1866)



‘낙소’라고도 불렸던 장주기는 경기도 수원 느지지(현 화성군 양감면 육당리)에서 태어났다. 1826년 세례를 받은 그는 박해와 친척들의 방해로 피해 충청도 배론으로 이사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회장으로 임명되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다. 1855년 배론에 신학교가 설립될 때는 자신의 집을 임시 신학교로 내주었고, 본인은 신학교에 딸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잔일을 도맡아 하였다.

1866년 3월 1일 배론 신학교에서 신 푸르티에 신부와 박 프티니콜라 신부가 체포되었을 때, 장주기도 함께 붙잡혔으나 신부들의 부탁으로 풀려났다. 이후 제천 부근의 노령골로 피신하였는데, 다른 교우들에게 피해가 번지는 걸 염려해 결국 자수하였고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한양 포청에서 고문을 견디며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그는 때마침 홍주 거더리에서 끌려 온 안 안토니오 주교, 민루카 신부, 오 베드로 신부, 황석두와 함께 사형을 선고받고 충남 보령군 갈매못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성금요일이던 3월 30일, 64세의 나이로 군문효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성화_박득순 作,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3

대림 제1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25(24),1-3 참조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좋아라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제1독서

예레 33,14-16

화답송

시편 25(24),4-5 7 8-9 10과 14(◎1)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견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

제2독서

1테살 3,12-4,2

복음 환호송

시편 85(84),8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음

루카 21,25-28.34-36

영성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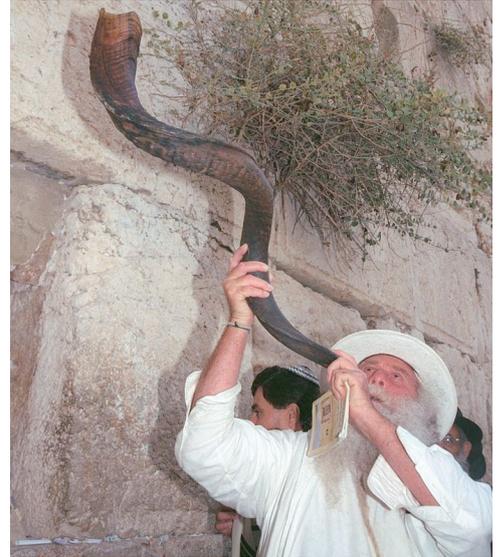
시편 85(84),13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구원의 뿔



숫양의 뿔



뿔 나팔

성경에서 뿔은 힘의 상징, 특히 하느님께서 지니신 힘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2사무 22,3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이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 제 구원의 뿔, … 저를 구원하시는 분.”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도 이처럼 생각해 우상의 머리를 뿔로 장식하곤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신의 힘을 뿔 달린 짐승의 힘에 빗대었던 것입니다 (민수 23,22 참조).

뿔이 힘의 상징, 특히 하느님께서 지니신 힘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러 보복 살해의 위험에 빠진 이들이 ‘제단의 뿔’로 피신해 주님의 용서와 보호를 바랄 수 있게 한 옛 관습에서도 엿보입니다(1열왕 1,50; 2,28). 하느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구실을 했던 제단(1열왕 8,30-32)은 성막과 성전에서 지성소만큼은 아니지만 “가장 거룩한 것”(탈출 29,37)으로서 전례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제물을 바쳐 속죄하고(레위 4,13-21 등), 하느님께서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레위 9,23-24; 1열왕 18,38). 이러한 제단에서 하느님의 힘과 자비를 가장 잘 드러내 준 부분은 네 귀퉁이의 뿔이었습니다. 아모 3,14에는 뿔을 자르면 제단 전체가 파괴되는 것으로 암시됩니다. 그만큼 뿔은 하느님의 힘과 신성이 깃든 상징이었고, 백성은 그것을 잡으면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스라엘은 예부터 하느님의 현존을 시청각

적으로 드러내고자 뿔 나팔을 불곤 하였습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 때뿐 아니라 주님을 대리하여 백성을 다스릴 임금의 즉위식에도 뿔 나팔을 불어 새 군주의 탄생을 알렸습니다(2사무 15,10 등). 축일과 축제 때도 뿔 나팔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시편 81,4 등). 특히 레위 25,9에 따르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선포할 때는 뿔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희년에 불 나팔은 숫양의 뿔이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는 희년을 뜻하는 히브리어 [요벨]이 숫양의 의미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희년이 되면, 가난 때문에 가산을 팔고 자신까지 판 백성이 자유를 되찾고 재산도 환원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족을 보호하여 온 이스라엘을 보호하려 한 것입니다. 이때 숫양의 뿔을 불어 주님의 현존을 환기한 뒤 토지의 소유권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땅의 원주인이자 백성의 구원자는 하느님이심을 천명하였습니다.

뿔이 지닌 이런 의미는 이후 성자 예수님에게 와서 육화하기에 이릅니다. 루카 1,69의 “당신 종 다윗 집안에서…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에 나오는 “힘센 구원자”는 직역하면 ‘구원의 뿔’입니다. 구약성경의 뿔 나팔에 대응하는 신약성경의 그리스어는 [살핑크스]인데요, 살핑크스 역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 오시리라.’는 1테살 4,16 등에 반영되어 그 의미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살핑크스가 언제 울릴지 우리는 알지 못하므로, 오늘 복음 말씀처럼 “늘 깨어”(루카 21,36) 있어야 하겠습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제7장 새로워진 만남의 경로 ⑥ - 사형(死刑)은 국가가 개인을 제거하는 방식

회칙 「모든 형제들」은 전쟁이 다른 나라를 제거하려는 불의한 국가적 행위라고 단호히 배척하면서 사형(死刑)도 국가가 개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형 폐지 노력에 헌신할 것을 천명합니다(263-270항).

먼저, 「가톨릭교회교리서」는 전쟁의 경우처럼 사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역시 집적(集積)·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합법적인 권위(국가)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형에 의지해온 것은, 비록 극단적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일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자 공동선 수호의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매우 중대한 범죄 후에도 인간 존엄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아졌고, 국가가 시행하는 형벌 제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등장했습니다. 마침내 시민들에게는 합당한 보호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범죄자에게서 속죄(贖罪)의 기회를 빼앗지 않는 효과적인 수감 제도가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형은 개인의 불가침과 존엄(invulnerability and dignity)에 대한 공격이기에 용납될 수 없다.’고 가르치며 단호히 전 세계적으로 사형 폐지를 위하여 노력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267항).

둘째, 회칙은 사법권의 독립 보장을 전제로, 합법적 권위(국가)의 형벌인 사형이 실재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회가 ‘오랫동안’ 사형을 반대하고 그 폐지를 위해 노력했

음을 밝힙니다. ‘어떤 예외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불법임을 밝힌 3세기 신학자 락탄시우스와 ‘죽음의 형벌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 9세기 교황 니콜라우스 1세 뿐 아니라, 동료 수도자를 암살한 죄인들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고 판사에게 요청한 4세기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일화도 소개합니다. 교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명확하고 단호하게’ 밝힌 대로, 사형이 도덕적 관점에서 부적절하며 형벌적 관점에서 불필요할 뿐 아니라, 「가톨릭교회교리서」의 인용대로 복음에 비추어서도 용납될 수 없음을 단언합니다.

셋째, 회칙은 형벌에 대해 ‘치유와 사회의 재통합 과정’보다 ‘두려움과 원한의 심리’에 기초하여 징벌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려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일부 정치 부문들과 특정 미디어의 공적·사적 폭력과 복수의 선동, 의도적 날조, 예방적 구금, 재판 없는 투옥, 사형에 의지하는 관행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게다가 ‘특정 국가들과 그 대리인들에 의해 고의로 저질러진’ 법정 밖 또는 법의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처형을 범죄자들과 충돌의 결과라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쯤이라 말하며 그 불법성뿐 아니라 도덕적 감각마저 무디게 만드는 위험성은 심각합니다. “살인자조차도 그의 인격적 존엄을 잃지 않으며, 하느님께서 몸소 그것을 보증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명심합시다. 사형에 대한 단호한 거부는 양도불가(讓渡不可, inalienable)한 모든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드러냅니다”(269항). ☸

목동들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

중세 수사본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입니다. 10세기 스위스 중부 아인지델른 지역에 지어진 베네딕토회 수도원은 아름답기로 이름난 곳입니다. 본 수도원 도서관에는 이 수사본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잘 다듬은 양피지에 정교한 세밀화와 글이 쓰인 이 수사본은 15세기 작품으로, 중세 특유의 섬세한 장인 정신과 새 시대인 르네상스의 유려하고 여유로운 휴머니즘과 공간감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매우 작은 세밀화임에도 풍부한 표현이 놀랍습니다.

수사본의 한 장(chapter)이 시작되는 첫 페이지는 아름다운 삽화로 장식되었는데, 여기 첫 알파벳은 'B'입니다. 상단에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 둘레는 인동넝쿨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식물 모티브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단 나뭇가지에는 올빼미와 새 한 마리도 숨어 있어 화면에 생기를 더해줍니다.

이제 수사본의 핵심인 중앙 그림을 살펴봅니다. 하늘의 축복이 푸르른 언덕 위에 펼쳐지는 광경입니다. 멀리 좌측에는 소프트아이스크림이 연상되는 기묘한 모습의 바위가 우측으로 쏠려있는데, 이는 중세풍의 산입니다. 동방 이콘의 영향으로 마치 바위같이 묘사된 산 앞에는 야트막한 산도 있습니다. 조금 평평한 언덕 위에는 양들에게 자유로이 풀을 뜯게 하는 두 명의 목동이 있습니다. 저녁이지만 마치 밝은 대낮인 듯 표현되어 그 광경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지요. 화면 좌측 전경에는 졸졸 흐르는 강줄기가 있고, 순백의 양 한 마리가 한가로이 물을 마십니다. 또한 두 마리의 검은 동물은 목동을 도와 양을 지키는 양치기 개들입니다.

이렇게 잠시 여유를 즐기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빛을 발하며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옛되고 둥근 얼굴이 친근하지만, 황금색 드레스 차림에 달린 붉은 날개가 천상에서 온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림〉, Codex 291, 양피지에 채색, 아인지델른 수도원

천사는 인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의 몸은 단축법으로 그려져 상반신과 붉은 날개만 보이도록 표현되었고, '왕이 나셨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두루마리를 마치 만화의 말풍선처럼 표현한 중세식 기법도 인상적입니다. 천사에게서 가늘지만 강렬한 빛이 지상계를 고루고루 비추고 있습니다. 검은 모자의 남자는 눈이 부신 나머지 모자를 깊이 눌러 빛을 피하는 반면, 잔디에 털썩 주저앉은 붉은 두건의 남자는 팔을 들어 올려 눈을 가리면서도 이 광경을 보고자 인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기만 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가장 고귀하신 분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은 권력과 명예와 지식을 지닌 동방박사들뿐 아니라 미천한 목동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남루한 마구간에 제일 먼저 달려온 이들이 보잘것없는 목동들임을 기억합니다. 사방으로 고루 비추는 '빛'과 같이 예수님의 축복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지상낙원이 연상되는 아름다운 자연에서 기쁨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동들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



교구
소식

동두천어린이밥집 포이마이노 직원 채용

모집 1명 (계약직, 추후 정규직 재임용 가능)
근무 주5일 (40시간)
장소 어린이청소년밥집 포이마이노 (동두천시 생연동) - 오픈 예정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제출 0810369khk@gmail.com
문의 010-3946-9018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한마음 사계 피정 - 2월

일시 2025년 2/7(금) 16시 ~ 9(주일) 13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주제 하느님 길을 걷다
강사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서울대교구)
회비 1인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 한마음 사계 피정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 교구소식 참조



신청 ▶

의정부교구 제145차 ME 주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창세 2,18).
날짜 12/6(금)~8(주일)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문의 010-9504-0419 ME주말분과 대표

파주 EXODUS 사회교리 특강

일시 12/21(토) 19:30~21시
장소 정발산 성당 1층 강당
주제 전쟁의 시대, 평화의 길
강사 강주석 베드로 신부
문의 031-948-8105

전신자 성경 읽기 12/1(주일)~7(토) : 요한 1,1-18



12/28(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최종 문서」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에서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최종 문서」를 발표하였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



 **미사 · 피정 ▶▶**

청년 대림(하루) 피정

일시: 12/21(토) 10시~18시
장소: 성심수녀회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대상: 39세 이하 남녀 청년 (미혼)
회비: 1인 1만원 (중식포함)
문의: 010-9385-5814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연말연시(한라산·해돋이): 12/29(주일)~1/1(수)
눈꽃산행: 1/11(토)~13(월), 1/16(목)~18(토), 1/20(월)~22(수), 1/24(금)~26(주일), 2/7(금)~9(주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 하는 산들평화순례
연말연시(한라산): 12/30(월)~1/2(목)
한라산눈꽃산행: 1/17(금)~19(주일), 1/23(목)~25(토), 2/8(토)~10(월), 2/14(금)~16(주일), 2/22(토)~24(월)
추자도포함: 3/1(토)~4(화)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신심 미사

일시: 12/6(금) 15시 성시간, 16시 미사
18:30 성시간, 19:30 미사
장소: 예수성심전교수도회 (고양시 덕양구 삼막2길 16)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신청 필수)

청주 초정성령회관 금요철야

일시: 매주 (금) 21시 ~ (토) 03시
버스: 조치원역 신한은행 앞, 19시 출발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19:20 출발
강사: 전국 유명강사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피정 및 12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피정: 12/2(월) 10시~16시
메주고리에 찬양기도, 성시간, 미사안수(중식무료)
12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12/14(토) 12시~17:30
미사안수 있음(중식무료)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2일: 12/21(토)~22(주일), 2/14(금)~15(토)
3박4일: 12/5(목)~8(주일)
4박5일: 2/17(월)~21(금)
8박9일: 12/26(목)~1/3(금), 1/6(월)~14(화)
40일: 12/14(토)~1/22(수)
장소: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산)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토마스 머튼 영성 배우기 피정

일시: 2025년 매월 첫째(토) 10시~16시 [총12회]
장소: 성 베네딕도회 서울 분원 피정의 집 (장충동)
강사: 박재찬 신부 / 주제: 토마스 머튼의 영성
문의: 010-8719-8608 (문자 문의)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12/6(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성체현시와 함께하는 기도회
강사: 김영철 신부 (전국 및 교구 담당, 4지구장)
문의: 010-2127-0032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12/20(금)~23(월), 1/3(금)~6(월), 1/17(금)~20(월), 2/7(금)~10(월), 2/21(금)~24(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 (수유동)
비용: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골롬반 청년 대림 피정

일시: 12/14(토) 10시~17시
장소: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대상: 23~34세 신자
회비: 1만원 (현장 납부, 점심식사 포함)
신청: bit.ly/골롬반청년피정12
문의: 010-5033-9302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열두 소예언서II:
12/20(금)~22(주일)
성경완독: 1/2(목)~10(금), 2/7(금)~15(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매월 첫화요 오후 피정 - 마리아니스트센터

예수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
일시: 12/3(화), 1/7(화) 14시~16:30
장소: 마리아니스트 센터 (덕양구 호수로 76-13)
강사: 장희성 신부(마리아니스트센터 관장)
내용: 묵주기도, 성체조배, 영성강의, 미사, 안수
문의: 010-9585-6283 (무료 피정)

수도자와 함께하는 성탄 피정

날짜: 12/23(월)~25(수)
장소: 연천 착한 의건의 성모수도원
주제: 별을 따라서 / 회비: 25만원
문의: 031-834-1262

지혜의 샘 12월 피정 프로그램

대림 피정: 12/11(수)
강사: 이용권 신부(인천교구), 한영임 회장
장소: 010-3248-9705
지혜의샘 북방선교 기도공동체

 **교육 · 모집 ▶▶**

자원봉사자 모집 - 치위생사, 치과조무사

이주민을 위한 무료 치과 진료
대상: 치과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분
일시: 주일 13시~17시 [월1회]
문의: 031-948-8105 파주 EXODUS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음악원: 일산 (금) 11시
문의: 010-9842-8818

행복한 겨울캠프 접수

날짜: 1/3(금)~5(주일) [2박3일]
대상: 현재 중학교 1, 2학년
접수: 홈페이지 12/17(화) 10시까지 (선착순)
회비: 15만원 (접수 확정 문자 후 이체)
문의: 043-260-5076 양업고등학교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2024년 정기 세미나

일시: 12/7(토) 14시~17시
장소: 수원교구청 2층 강당
주제: 가정과 생명, 그리고 AI
문의: 02-460-7623

2025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접수: 11/11(월)~2/14(금)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보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보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행신2동 성당 관리인 채용

자격: 고졸 이상, 세례 받은 교우
업무: 시설관리, 영선관리, 경비 등
접수: 1/17(금)까지
문의: 031-979-4071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예수회 센터 겨울방학 특강 - 1월 개강

문화유산으로 보는 교회사(중세): 이진현 신부
비블리오드라마(성경드라마) 피정: 김영근 신부
월요무료피정(12/23 개강): 이근상 신부
고대 그리스의 시간과 그리스도교 신학: 김민철 신부
각 6-10주/ 현장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신청: 02-3276-7733, center.jesuits.kr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선교아카데미 14기 교육생 모집

일시: 3/6~8/28, 매주(목) 10시~15:30
장소: 한국외방선교회 본부 (서울 성북동)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회비: 80만원 (식대 포함)
문의: 02-3673-2528 한국외방선교회

파주 베타니아 노엘 밥집 및 클리닉 봉사자 모집

노엘 밥집: 매월 둘째(주일) 12:10~13:30
단체 봉사 가능
베타니아 클리닉: 매월 둘째(주일) 14시~16:30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소아과 진료 의사 모집
문의: 010-2032-0455 파주 베타니아

오남 성당 사무원 모집

자격: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업무: 사무행정, 회계업무, 행사지원 (경력자 우대)
서류: 자기소개서, 본당신부확인서(또는 추천서),
이력서, 교적사본, 관련자격증사본(해당자)
접수: 채용 시까지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onam1@uca.or.kr 접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의정부교구 기사사도회 모집

내용: 교구 행사 시, 교통 봉사 및 질서 유지
문의: 010-2762-9575 조성환 가브리엘 회장

오남 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일시: 매 주일 11시 교중미사
자격: 천주교 신자로 성가대 지휘 유경험자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학력, 일반경력 및
가톨릭음악 관련 활동 포함)
접수: 우편 또는 이메일 onam1@uca.or.kr
성가대 연습: 평일 및 주일
※ 소정의 수교료 지급합니다. (채용시 마감)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교리학과 (주간, 주5일)·종교학과 (야간, 주4일):
2년 과정,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과정 (1년 과정, 주간, 주3일):
본원 졸업생(통신과정 포함) 및 준한 과정 이수자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접수: 1/17(금)까지
문의: 02-747-8501, ci.catholic.ac.kr
※ 15명 미만 지원 학과는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28(화)~31(금) 설특집 일본 나가사키 (OZ항공)
2/3(월)~14(금) 이집트 (EK항공)
2/12(수)~16(주일) 마카오 (KE항공)
2/13(목)~24(월) 남부스페인~포르투갈 (KE항공)
2/24(월)~28(금) 베트남 다낭 성모발현지 (KE항공)
2/26(수)~3/8(토) 아르메니아~조지아 (EK항공)
3/7(금)~18(화) 튀르키예~그리스 (TK항공)
선착순 신청 마감
문의: 1551-1053, www.cpbctour.co.kr

아곱 전국 성지순례

3/10(월)~14(금) 일본 도쿄
5/14(수)~25(주일) 이탈리아
문의: 010-3712-8119

제25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미국 (1/15~2/4) [3주]: UCLA·UC버클리·
스탠포드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디즈니랜드,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사이판(1/11~2/4) [4주]: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
마나가하섬, 워터파크,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문의: 02-734-0999, cpbccamp.com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가격: 청국장(500g) 1만원, 된장(1kg) 2만원,
연잎밥 1만원(택배가능)
모든 재료는 국내산으로 직접 제조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2/8(토)~19(수) 성모발현지 (545만원, OZ항공)
2/24(월)~27(목) 홍콩, 마카오 (150만원)
3/11(화)~21(금) 동부유럽 4개국 (395만원)
3/13(목)~23(주일) 서부지중해 크루즈 (519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동반자 100만원 할인 이벤트 안내
3/17(월) 이탈리아 알프스 프랑스 (550만원)
3/17(월)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535만원)
4/22(화), 5/6(화), 5/13(화), 5/20(화)
이탈리아 일주 (465만원)
5/19(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075만원)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2/5(수) 나가사키 (4일, 139만원, OZ항공)
2/12(수) 성모님 발현지 (12일, 495만원, KE항공)
2/24(월) 이집트 일주(14일, 530만원)
3/3(월) 특가 튀르키예, 그리스 (11일, 385만원)
3/14(금) 시칠리아, 몰타 (10일, 485만원)
3/9(주일) 포르투갈 일주 (9일, 299만원)
4/22(화) 이탈리아 일주 (11일, 41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천주교의정부교구
카카오톡 채널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대상	문 의
	의정부가르멜 여자수도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35세 미만 미혼 여성	010-8078-7016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만 45세 이하 미혼여성 (상시 상담가능)	010-9199-4995

대림초와 대림환

오늘부터 대림 시기가 시작됩니다. ‘대림’(待臨)은 ‘오시기를 기다린다.’라는 뜻으로 ‘도착’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 (adventus)를 번역한 말입니다. 가톨릭교회는 매해 전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대림 제1주일부터 한 해의 전례 주년이 시작되기에, 오늘은 전례력으로 새해 첫날이 됩니다.

대림 시기의 대표적 상징이라면, 바로 대림초와 대림환입니다.

대림초는 4개로 구성되는데, 숫자 4는 그리스도의 빛이 동서남북 네 방향, 곧 세상의 모든 곳을 두루 비추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약 시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천 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사천 년은 과학적 계산법이 아니라 성경의 연대 계산법에 따른 상징적 시간입니다. 대림초는 가장 짙은 보라색부터 시작해 점차 밝은색으로 매주 한 개씩 늘려 켜갑니다. 이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대림 시기를 보내는 우리의 죄가 점차 씻겨 깨끗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각각의 대림초에는 진한 색부터 다음과 같은 명칭과 의미가 있습니다:

- ① 예언의 초 :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오실 거라 알린 예언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전한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의미
- ② 베들레헴의 초 :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인의 믿음을 나타내며, 예수님을 낳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는 의미
- ③ 목자의 초 :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까웠기에 느끼는 기쁨과 희망을 의미
- ④ 천사의 초 :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전해준 수태 소식으로 누리는 참 평화를 의미



또한 대림초를 사철나무로 등글게 감싸는 대림환이 있습니다. 사실, 대림환은 대림 시기의 전통 중 비교적 근래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를 처음 고안한 사람은 독일 루터교 목사 요한 비헤른(1808-1881)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833년 독일 함부르크에 세운 무의탁 청소년들을 위한 기숙학교에서 이를 처음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1920년대 독일 가톨릭교회로, 1930년대 북미 가톨릭교회로 전해져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림환의 둥근 모양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늘 푸른 사철나무는 하느님의 충만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이사 9,1)라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는 기쁨 속에 구세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와 보속 그리고 희망의 마음으로 이 복된 은총의 시기를 경건하게 보내도록 합시다. ☀